

#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확대” vs “내 땅 묶인다, 빼달라”

고성 오간 무등산 국립공원 공원 계획 변경 공청회

### “환경성 높은 지역 영구 보존해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임업 종사 최다 화순 주민들 “산림산업 말살” 강력 반발

“국립 공원의 무작정 확장은 우리 산림 산업을 말살 한다. 국립 공원은 반성하라.”

무등산국립공원 공원 계획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현장에서 펼쳐진 현수막이다.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이유로 공원 확대에 반대 의견을 내비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4일 환경부 주최하고 국립공원공단이 주관한 ‘무등산 국립공원 공원 계획 변경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가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는 무등산 국립공원 관계자와 화순·담양 군 관계자를 비롯 해당 지역 지역민들이 참가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면서 고성이가 오가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는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하지는 게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자신의 땅을 국립공원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날 발표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평가’ 용역 결과, 무등산 국립공원 공원 전체구역은 75.425㎢이며 여기에 1.322㎢가 편입되고 0.543㎢가 해제됐다. 결국 국립공원 총 면적은 0.779㎢가 늘어 76.204㎢가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47.654㎢의 면적에서 0.178㎢가 새롭게 추가되고 0.402㎢가 해제돼 0.224㎢가 줄어들게 된다.

담양도 11.969㎢의 면적에서 0.030㎢가 새로 편입되고, 0.020㎢가 해제돼 0.010㎢만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화순은 1.113㎢가 새롭게 편입되고 0.121㎢가 해제돼 0.992㎢가 늘어 가장 많은 면적이 편입돼 16.794㎢의 면적이 된다.

광주 7개 마을보호지구에서 광주 동구 동적골과 용연마을, 북구 화암마을, 화순 들국화마을 등 4곳은 해제가 검토중이고 문빈정사와 선정암 2곳은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을 논의 중이다.

이 계획안이 최종 결정안은 아니다. 환경부는 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관계자는 “무등산은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당시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합의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오늘의 공청회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동욱 호남대 교수는 “국토를 효율적 이용해야 하지만 광주·전남에서 무등산 국립

공원은 우리들의 정서와 감정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보존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서 “산주나 토지 소유자들은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산인 무등산을 영구히 보존하면서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한다”고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화순군과 화순 지역민들은 반발은 거세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은 임업 종사자가 32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다”면서 “화순에서 114ha 규모에 이르는 임업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소득 창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화순의 국립공원 확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역민들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이익이 되는 점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 소유 산지의 지반을 말하며 해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화순의 한 지역민은 “개인의 땅을 그린벨트·도립공원에 이어 국립공원으로 묶어 30년 이상 사용을 못하고 있다”면서 “비닐 하우스나 컨테이너조차 놓지 못한다. 국립공원 전체를 해제하고, 환경 보존이 필요하면 개인의 땅을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화순·담양의 임업후계자들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한 임업후계자는 “산림청은 임업의 확대를 이야기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은 개인의 재산권을 가로막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불편은 해소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보전 가치에 따른 해제 또는 편입 대상지를 정해 공원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4일 오후 광주 서구 삼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공원경계 변경안에 반대하며 펼침막을 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광주대 대학원 2021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

16~27일 원서접수

광주대학교 대학원이 2021학년도 전기 석·박사과정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이며,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교학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석사학위 과정 160명, 박사학위 과정 40명, 편입생 20명이다. 계약학과 및 외국인 등 정원 외 인원은 별도 선발한다.

특히 광주대는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도시재생·부동산학과와 문화콘텐츠학과, 미래융합기술공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방재안전학과(계약)를 신설했으며 보건성담정적대학원 석사과정에도 창업학과를 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면접 및 실기전형은 12월 10일~14일에 실시되며, 12월 23일 오후 2시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채희종 기자 chae@

## 전남대, 광주·전남 출신 광복군 12명 추가 발굴

###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아카데미

전남대학교가 광주·전남 출신 광복군 12명을 추가 발굴했다. 이로써 이 지역 출신 광복군은 모두 56명으로 늘게 됐다.

전남대가 광주학생독립운동 91주년을 기념해 지난 3일 사회대 별관 운상실에서 개최한 민주평화 아카데미에서, 박주성(전남대) 박사는 ‘해외로 나간 전라도 출신 광복군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광주전남 출신 광복군은 44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12명을 새롭게 발굴했다”며 소속부대와 실명을 밝혔다.

박주성 박사가 새로 찾은 우리 지역 출신 광복군은 광복군 1지대 선전대 사령부 주호지대 육군부 이상우, 해군부 신원식·강석인·신성태·고태훈·허시·강재두, 해방후 광복군 전남지부 참모장 장홍열을 비롯해 김영선·손경생·이상만·오경호 등 모두 12명이다. 이와 함께 이날 아카데미에서 박태현 초당대 교수는 전남대 전신학교인 광주농업학교, 목포상업

학교, 여수수산학교의 광주학생독립운동 참가자와 서훈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전남대 전신학교들의 광주학생독립운동사와 개인별 독립운동 공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서훈을 추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남대는 지난 8월 여수수산학교, 광주농업학교 등 전신학교 501명에 대하여 명예졸업장을 수여한 바 있다.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광주고등보통학교 100년과 광주학생독립운동 디아스포라 콘텐츠 재구축’에 대한 기초발제를 통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인 장재성 선생(1962년 서훈 취소)의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활동, 1928년 광주고보 이경재 사건의 주역인 이경재 선생(건국훈장 애국장)의 일본·중국에서 20여년에 걸친 독립운동 디아스포라로서 활동, 그리고 1928년 광주고보 동맹휴학으로 퇴학당한 뒤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돼 후쿠오카형무소에서 순국한 조금동 선생(건국훈장 애국장)의 활동상에 대해 발표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아파트 난개발...무리한 학교 증축 이어져”

### 학벌없는 사회 “공실률만 높일 것”

광주 도심에 아파트 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당달아 학교 증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리한 학교 증축은 장기적으로 학교의 공실률을 높일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 교육청이 아파트 건설사와 시행사 등으로부터 받은 학교 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금으로 교실을 증축한 학교는 총 17개교였다. 이들 학교는 총 148개 교실을 늘렸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29개교가 209개 교실을 증축했다.

이처럼 학교 증축이 이어지는 이유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도 도심 내 교육시설 부지가 없거나 부지가 가격이 높아 학교 신설보다는 증축으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교 증축은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오히려 건설과 관리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학벌없는 사회는 분석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기존의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 구역 내 소규모 학교를 신설하거나 과소 학교와 인근 과밀학교의 공동 통학구역 지정하는 등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 가능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대입 컨설팅 받으러 서울 가지 마세요

### 전남교육청 대입지원관계 내년 도입...입학사정관 출신 채용

코로나19와 변화하는 입시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입시 지원관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제348회 전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춘호 전남교육청 행정국장이 2021년에 2명의 대학입시 지원관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지원관 제도는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진로설계 등 진학 준비에 현실적인 도움과 정확한 대학 진학 정보를 줄 수 있는 대학입학사정관 출신을 채용해 운영된다.

현재도 교육청에서는 파견 교사가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전문 인력이 아닌 만큼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도 교육청은 특히 섬 지방 등 교육 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대학입시 지도를 맡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 대학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의 지속된 요구로 2019년 5월 목포와 순천, 여수, 나주 등 4개 권역에 진학지원센터가 들어섰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한한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0729-중-44360호

## 성장에 중요한 시기

# 성장판 닫히기 전에!

**소중한 우리아이 성조숙증이 걱정된다면 한약 치료로!**

**“성장을 방해하는 성조숙증 제때 검사와 치료가 중요해요”**

성조숙증은 내 아이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성장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정서, 성격 형성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기원 서정한의원 원장

저희 서정한의원은 25년간 진료하며 쌓아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성장을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직한 진료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대면진료 가능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오니 전화 혹은 온라인 문의 바랍니다.

성조숙증클리닉 성장클리닉  
**서정한의원**  
seojeong.com

소아비만, 성조숙증, 성장장애를 동시에! 체질을 고려한 성장장애치료

예약문의 | 24시간 전화 예약 가능

# 02-515-8585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1(삼성동 37-15 서정빌딩)  
본당신 선정동역 2번출구에서 약 60m /라마다 서울호텔 맞은편